

기독교텍스트 내
문(文)외적 지시사로서의 ‘the’의 번역:
학생 번역 사례를 출발점으로

최 효 은(崔曉恩)
(이화여대)

1. 서론

‘기독교번역’¹⁾이라는 과목에서 학생들의 번역을 검토하던 중, 충실성 내지 가독성 혹은 직역 내지 의역이라고 하는 기존 번역 평가와 전략에 관한 논의에서 중심축을 이뤄왔던 개념들로써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 하나를 포착하게 되었다. 바로 ‘the’의 번역이다. 직역과 의역, 충실성과 가독성 등은 개념상, 적용상의 애매성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한 논의는 본 논고의 관심사에서 비껴가는 것이므로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the’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것은 본래 우리말

1) 한동대 통역번역대학원 1학년 2학기 교과과정 中.

어휘가 아닌 번역체이며 ‘그’의 지시대상이 불분명할 경우 텍스트 이해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the’를 제외한 내용어(content word)의 표층만 번역을 하다보면 원문의 결속장치(cohesion)²⁾를 재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번역문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점을 극복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개념이 공지시성(co-referentiality)³⁾이다. 그러나 ‘기독교번역’이라는 과목에서 이러한 견해와 개념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the’의 번역의 경우를 만나게 되었다. 이에 강의자로서 그 같은 사례에 대한 언어적, 상황적 설명을 궁리하지 않을 수 없는 바 본 연구를 실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가 된 ‘the’의 번역 현상을 소개하고, 그 현상을 발생하게 하는 ‘the’의 언어적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사례를 포착하게 된 ‘기독교번역’이라는 과목이 상정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the’의 언어적 성격이 기독교텍스트의 번역이라는 맥락에서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본 연구를 촉발시킨 기독교텍스트 내 ‘the’의 번역의 양상이 무엇인지 소개하도록 하겠다.

2) ‘cohesion’과 ‘coherence’에 대해서는 다양한 번역어가 존재한다. cohesion은 응결성, 문법결속, 결속구조, 표층결속성 등으로, coherence는 일관성, 의미결속, 결속성, 심층결속성 등으로 번역된다. 필자는 이 둘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라면 Baker의 *In Other Words*를 번역한 『말바꾸기』와 Snell-Hornby의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를 번역한 『번역학 발전사』처럼 cohesion은 표층결속성, coherence는 심층결속성으로 번역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Beaugrande와 Dressler가 cohesion과 coherence를 구분하여 설명하면서도 둘의 관계 설명할 때는, “텍스트 표층의 cohesion은 텍스트적 세계에 이미 전제된 coherence에서 달려있다”(1981: 71)고 한 견해와, Halliday와 Hasan(1976)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cohesion만 논한 것에 근거하여 이 둘을 결속성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본 논고에서는 주로 Halliday와 Hasan이 다루어지므로 언어적 표층으로 구체화된 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결속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3) ‘co-reference’는 동일지시로도 번역된다(김광희 1997: 48).

2. 연구 대상: 올리브 과수원 vs. 겻세마네 동산

필자는 2012년 2학기 '기독교번역' 과목에서 중간시험 지문으로 존 스토틀 (John Stott)⁴⁾의 *Through the Bible through the Year*⁵⁾를 발췌하였다. 학생들은 해당 서적의 다른 부분을 중간시험 이전에 과제로 한 차례 번역한 적이 있어서 저자와 텍스트 유형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강의자는 시험 일주일 전에 그 서적에서 시험을 출제할 거란 사실과 함께 관련 성경구절을 공지하였다.

The Agony in (1)the Garden⁶⁾

He [Jesus] began to be deeply distressed and troubled.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he said to them.

(Mark 14:33-34)

Jesus' agony in (2)the olive orchard provides a vivid example of the paradox of his person. On the one hand, we see his human hunger for the companionship and prayer support of his friends, together with the recognition that his will could be distinct from his Father's ("Not my will, but thine, be done"[Luke 22:42 KJV]). On the other hand, even in the midst of his pain, he spoke to God in the unique intimacy of the address "Abba, Father" (Mark 14:36). ...

상기 발췌는 독립적인 장(章)의 맨 처음에 등장한다. 시험 지문으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출제되었다. 즉 (1), (2)의 'the'는 텍스트의 첫 부분에 등장한 만큼 지시대상으로 추정할 다른 단서가 없다. 또한 제목 'The Agony -'의 'The'처럼

4) John Stott (1921-2011) 영국 런던의 올소울즈 교회(All Souls Church)에서 30년간 주임사제로 목회하였고, 런던현대기독교연구소(London Institute for Contemporary Christianity)를 설립하여 강연과 저술 활동을 펼쳤다. 복음주의 기독교계의 대표적 지성으로 꼽힌다.

5) 국내에는 『나의 사랑하는 책: 교회력에 따른 매일 성경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역간되었다(IVP, 이지혜·최효은 옮김).

6) 발췌 중 일련번호와 밑줄은 필자가 표기한 것.

뒤에 따라 오는 명사구를 위한 한정적인 용법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 이 과목을 수강하는 아홉 명의 학생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1) 'the Garden' 번역	(2) 'the olive orchard' 번역
학생 A	동산	올리브 과수원
학생 B	올리브 산	올리브 산
학생 C	갯세마네	감람나무 과수원
학생 D	갯세마네 동산	감람나무 가득한 갯세마네 동산
학생 E	갯세마네 동산	감람나무 동산
학생 F	감람산	감람산
학생 G	갯세마네 동산	감람원
학생 H	갯세마네 동산	갯세마네 동산
학생 I	갯세마네 동산	갯세마네 동산

원문 (1), (2)는 같은 지시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에 기대되는 번역은 '갯세마네 동산' 혹은 '감람산(원)' 등이며 이 둘은 교차 사용이 가능하다. 이 책의 역서기도 그 같이 번역하였고, 학생들의 번역에서도 이 두 표현의 다양한 변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학생 A의 경우는 원문의 언어표층을 그대로 각각 재현하고 있고, B도 A와 유사한데 다만 (1), (2)가 한정하는 대상이 'the (Jesus) agony'로 동일한 것을 근거로 둘의 번역어를 통일시켰다⁸⁾.

그렇다면 A(혹은 B도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주어진 텍스트의 언어표층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번역어를 선택하여 충분한 번역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기독교텍스트와 성경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의식하고 번역과정에 임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자도 번역할

7) 각주 5) 참고

8) B에 대해서는, 강의자가 제안한 참조 성경번역본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적절한 번역어를 선택한 그룹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강의자가 '우리말성경'이나 '공동번역성경'을 참조하라고 제안했다면 B 역시 성경과의 관련성을 유지한 번역어를 선택한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목의 강의자는 '개역개정판'을 참조할 성경으로 제시하였으므로 번역의 충분성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로 포함시켰다.

텍스트와 관련된 성경구절을 미리 공지하였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당 구절을 중심으로 한 사전학습을 토대로 적절한 번역어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 A는 사전학습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올리브 과수원’이라고 하여 내용어의 언어표층을 그대로 옮겼다. 그렇다면 이 학생 A에게는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지 ‘the’의 언어적 성격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3. ‘the’의 언어적 성격과 번역

3.1. ‘the’와 조사(助詞)로의 번역: 기지(既知)의 정보

크링스(Krings 1986, Fawcett 1997: 140)는 AB방향의 번역을 하는 번역 학습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사전이라고 관찰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학생들이 BA방향으로 ‘the’가 포함된 어구를 번역하면서 ‘the’ 때문에 사전을 찾아보았을 것 같지는 않다. 설령 찾아보았다 해도 다음의 이유들로 얼른 덮어버렸을 것이다. 영한사전에서 ‘the’를 찾으면, ‘the’는 ‘that’이 약해진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 ‘이’, ‘저’, ‘예의’, ‘문제의’, ‘~라는 것’, ‘~인 것’ 등으로 새길 수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⁹⁾, “구태여 풀이할 필요가 없을 때가 많다”¹⁰⁾, “우리말로 새길 수 없는 경우가 많다”¹¹⁾ 등의 주지사항이 붙어 있다. 그리고 사전마다 적게는 16가지에서 많게는 27가지의 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주로 “이러이러 한 경우에 ‘the’를 붙인다.”고 하는, 주로 한영번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중심을 이룬다.

지금까지의 사전적 정보를 정리하자면 ‘the’는 구태여 번역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굳이 ‘그’로 번역을 했다면 대명사나 지시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한국어의 관습상 교정 과정에서 번역자가 직관적으로 삭제해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현상에 관련하여 조의연(2009: 218)은 영어 ‘the+명사(구)’에 대응되는 한국어 구조가 ‘∅+

9) 『Prime English-Korean Dictionary』 제5판 (2007) 서울: (주)두산동아.

10) 『웹스터 英韓大辭典』(2003) 서울: 圖書出版 裕翰.

11) 『e4u 영한사전』(2003) 서울: YBM/Si-sa.

명사(구)'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삭제 전략은 탈식민지적 관점에서 환영되기도 한다. 원영희(2002: 108)는 영한번역에서 나타나는 '그'는 식민지적 원문 수용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영어는 동일 어휘의 반복을 피하는 통사적 경향 때문에 3인칭 대명사와 정관사의 사용이 빈번한데 반해, 한국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하고 특히 순위 어른을 칭할 때는 대명사 사용을 금기시한다고 두 체계의 차이점을 지적한다(ibid.: 118). 그러나 상이한 두 체계를 오가야 하는 번역자의 입장에서 이 같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특히 출발어의 특정 요소에 대응될만한 도착어 요소가 없는 이 같은 상황에서 그 기능적 공백은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지는 원영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조의연과 원영희의 견해들은 본 연구의 학생들이 왜 '그'를 생략하고 번역하였는지를 적절하게 설명해주고 또 지지해준다.

그러나 사전에 위와 같이 '그'로의 번역만 제안된 것은 아니다. 부정관사와 비교하여, 'a'가 '미지(未知)의 정보'를 나타낸다면, 'the'는 '기지(既知)의 정보'를 나타낸다는 점이 소개되어 있다. 이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 지침서를 쓴 연구자들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번역전략을 논하고 있다.

안정효(2002: 40)의 경우 'the'의 번역을 별도로 논한 것은 아니나 'a'의 번역이라는 절에서 부정관사도 때에 따라 번역해야 하고 그 방법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하여 미시구조의 번역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켰다.

김정우(2006: 97)는 우리말 주격조사 '이/가'는 화자가 처음으로 알게 된 내용을 전달하는데 관여하고, 보조사 '은/는'은 화자(또는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관여한다고 하여 전자를 'a'에, 후자를 'the'에 대응시켰다. 이때 '이/가'와 '은/는'이 가져오는 효과의 차이는 전자는 주된 관심의 초점이 주어에 놓이게 하는데 반해, 후자는 서술어에 놓이는 것으로 요약하였다.

이희재(2009: 186)도 기법 상으로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고 있는데 이 기법에 관련된 역사적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이희재는 120년 전 언더우드(Underwood, Horace Grant) 목사가 목적어에 붙은 'a'와 'the' 번역에 대해 전자는 목적격 조사를 생략하고 후자는 명기한다고 하여 이 둘의 번역을 조사와 결부시켰던 것에 착안하였다. 그리고 이 점을 주어에 적용하여, 주어에 붙은 'a'와 'the'의 경우 전자는 주격조사 '이/가'로 후자는 보조사 '은/는'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 언어학자 오노 스스무(大野晋)

가 보조사 是(‘은/는’)와 주격조사 が(‘이/가’에 해당)의 차이를 기지의 정보와 미지의 정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용한다(*ibid.*: 187). 여기서 김정우나 이희재 모두 기지의 정보와 미지의 정보라는 용어를 이론적으로 상술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것은 번역학 내에서 익숙한 암만(Amman, Hermann)의 주제와 평언(theme/rheme) 개념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은 암만이 처음 제안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구정보와 신정보(old/new 또는 given/new), 주제부와 술부(subject/predicate), 화제와 논평(topic/comment)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였다(이상원, 2003: 147).

이상의 견해들을 살펴본 것은 여기서 제안된 번역전략이 본 연구의 사례에 곧장 적용될 수 있어서가 아니다. 본 연구의 사례는 ‘the’가 포함된 어구의 번역어를 어떻게, 왜 그렇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이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조사로 어떻게 표시하는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의 논의들은 본 연구 문제를 이해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번역시 간과하기 쉬운 미시구조인 ‘the’의 번역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점, 특히 그 과정에서 ‘기지의 정보’임을 표시하는 ‘the’의 언어적 기능이 부각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면 ‘the’가 신호해주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그 정보는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내어 충분한 번역에 이를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3.2. 텍스트 결속장치로서의 ‘the’의 번역: 공(共)지시(co-reference)와 선조응적 지시(anaphora)

신지선(2006: 27)은 영어 원문에 공(共)지시(co-reference) 항목이 등장했을 때, 그것이 공지시 항목임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텍스트 외부의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번역할 때에는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명시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공지시란 베이커(2011: 192)에 따르면 “텍스트적이지만은 않은 지시”이고, 호이(Hoey 1988, 재인용 *ibid.*)에 따르면 “언어적 특징이라기보다는 현실세계에 대한 지식의 문제”이다. 한편 베이커는 공지시의 예로 동일한 지시 대상인 대치 수상이 한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하는가를 보여준다(Mrs Thatcher → The Prime Minister → The Iron Lady → Maggie).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공지시란 결국 동일한 대상을 다양한 어휘로 표현하는 것이다.

영어가 동일 어휘의 반복을 피하는 경향이 있음은 원영희(2002)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영한 방향의 번역에서는 이 같은 공지시의 개념과 그에 따른 번역전략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결속성 높은 번역문을 생산하기 위해 공지시를 이루고 있는 텍스트적 장치를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텍스트 외부의 지식이 필요하고 텍스트적이지만은 않은 지시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아는 것은 학생 A에게도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공지시가 본 연구대상과 동일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지시와 ‘the’의 상관관계부터 살펴보겠다.

신지선(2006)과 베이커(2011)는 공지시와 ‘the’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앞서 제시한 베이커의 예와 아래 신지선의 예를 보면 ‘the’가 공지시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A]Intel announced it would cut more than a tenth of its workforce as part of a drive to become more efficient in the face of tough competition in the computer chip market. [a]The world's leading computer chip maker had a payroll of 99,000 people worldwide prior to the much-anticipated announcement that it would lay off approximately 10,500 workers.
(신지선 2006: 25)

위의 예문에서 공지시는 지시대상으로서의 [A]와 그것의 다른 표현인 [‘the’ + a], 즉 ‘the’를 포함한 명사구로 지시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이 예에서는 원(原)지시대상인 [A]가 [‘the’ + a]에 선행하여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the’와 공지시의 상관관계는 베이커가 인용하고 있는 할리데이와 하산(Halliday & Hasan 1976)의 문헌들을 추적하다보면 더욱 가시화된다. 베이커는 공지시에 관한 부분에서 할리데이와 하산이 어휘적 결속(lexical cohesion) 유형 중 반복(reiteration)을 설명하며 제시한 예를 인용한다.

- There's a boy climbing that tree.
a. The boy's going to fall if he doesn't take care.
b. The lad's going to fall if he doesn't take care.
c. The child's going to fall if he doesn't take care.

(Halliday & Hasan 1976: 279-280 예 중 일부)

할리데이와 하산은 반복에는 동일 어휘로의 반복(a), 유의어로의 반복(b), 상위어로의 반복(c)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지시 장치를 동반하고, 그 장치는 대체로 'the'라고 설명한다(*ibid.*: 278). 그리고 이 같은 'the'를 '선조응적 the'(anaphoric *the*), 즉 앞선 텍스트에서 등장한 지시물과 조응을 이루는 'the'라고 소개한다(*ibid.*: 279). 이후 하산은 표층결속성(cohesion)이 심층결속성(coherence)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논하기 위해 저술한 저서에서 공지시 관계는 동일한 개체를 가리킬 때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Hasan 1989, 광성희 2002: 129). 이로써 동일한 개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어휘적 결속 방법으로서의 반복과 그에 수반하는 'the', 그리고 공지시의 관계가 분명해졌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텍스트적이지만은 않은 지시인 공지시가 결국 'the'의 문제이기도 함을 확인하였다.¹²⁾ 그렇다면 이 같이 공지시를 형성하는 선조응적 'the'가 본 연구대상과 같은 경우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등장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조응적 'the'의 등장 방식은 아래에서 (1)에 해당한다.

- (1) [A]→['the' + a]
- (2) ['the' + a]
- (3) ['the' + a]→[A]

그러나 본 연구대상인 'The Garden'과 'the olive orchard'는 텍스트 맨 앞에 등장하여 (2)나 혹은 (3)에 해당한다. (1)의 경우 정확한 번역을 위해 텍스트 외부지식의 동원이 유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신중한 번역자라면 설령 외부지식이 없어도 [A]와 [a]가 동일 개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차릴 가능성이 (2)나 (3)에 비해 높다. 텍스트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정보의 흐름(information flow), 즉 주제와 평언(theme/rheme)의 구조를 분석하여 지시대상을 찾아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인용한 사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2) 물론 공지시를 형성하는 장치는 'the'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베이커의 예시에서 대처 수상을 가리키는 공지시 항목으로 'Maggie'가 있었던 것처럼 전혀 다른 어휘가 사용되기도 하고, "Those who know **her** respect **Zelda**[라인하르트(Reinhart 1983: 73)에서 발췌]."에서처럼 대명사가 관여하기도 한다.

첫째 문장: (가)Intel (theme1) → (나)the computer chip market (rheme1)

둘째 문장: (다)The world's leading computer chip maker
(theme2)

위의 문장에서 (가)와 (나)는 텍스트의 첫 번째 문장을 구성하고 있으니만큼 둘 다 신정보(theme)에 해당하지만, (가)가 (나)에 대해 주제어(subject, topic)로 주어졌다(given)는 측면에서 구정보(theme1)로 구분할 수 있다(참고: Fawcett 1997: 86). 이 첫째 문장에서 구정보와 신정보의 관계, 다시 말해 (가)‘인텔’이 (나)‘컴퓨터 칩 시장에서 활동 중인 업체’임을 파악했다면, 둘째 문장에서 ‘the’와 함께 (나)의 구정보(theme2) 형태로 등장한 (다)‘컴퓨터 칩 제조사’가 첫 번째 문장의 구정보(theme1)인 (가)인텔을 가리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분석은 ‘the’의 등장 순서가 순차적이지 않은 (2), (3)의 경우에도 텍스트의 총체, 혹은 뒷부분까지를 분석함으로써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1)의 경우보다 번역자에게 더 많은 주의와 외부지식의 적극적 동원을 요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 (3)의 경우는 분석의 방향이 순차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2), (3)과 등장 방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the’에 대하여 그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4. 문(文) 외적 지시로서 ‘the’: 결속장치 논의의 사각지대

할리데이와 하산은 ‘the’에 대하여, 영문법에서 ‘the’와 같은 행동양식을 보이는 다른 문법요소를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1976: 70). 그만큼 그 성격이 독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할리데이와 하산은 ‘the’가 포함된 ‘지시사 지시’(demonstrative reference)를 논하는 장에서, 같은 범주에 속하는 this, that, these, those, here, there, 그리고 now와 then 등은 다양한 기준으로 묶어 여러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the’만은 단독으로 단 하나의 절에서만 소개하고 있다. 할리데이와 하산의 결속장치 분류 내 ‘the’의 위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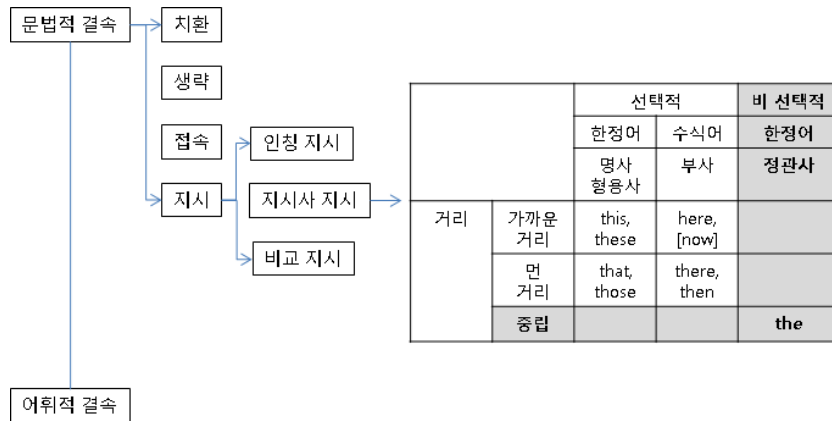


도표1 결속장치 구분 (할리데이와 하산(1976)의 구분을 토대로 필자가 구성)

그간 번역학에서 주로 주목해왔던 할리데이와 하산의 지시 구분(참고: 광성희 2000/2001/2002ab, 양명희·안경화 2003, 이주리에 2010, 홍경아 2012)은 상기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속장치에는 문법적 결속장치와 어휘적 결속장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전자는 다시 치환(substitution), 생략(ellipsis), 접속(conjunction), 지시(reference)로 나뉘고(Halliday & Hasan 1976: 4), 여기서 지시는 다시 인칭(personal), 지시사(demonstrative), 비교(comparative) 지시로 나뉜다는 구분이었다(ibid.: 37). 이때 'the'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지시사 지시에 포함된다(ibid.: 38).

그러나 이 같은 구분에서는 'the'의 성격의 전모를 적극적으로 논하기 어렵다. 도표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the'는 지시사 지시라는 동일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지시장치들과 공유하고 있는 성격은 '한정어'라는 기능 외에는 거의 없다. 또 지시대상과 화자의 거리(proximity)에 따른 구분에서 'the'는 중립(neutral)으로 구분된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는 거리가 중간 정도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멀다', '가깝다'를 정할 수 없다는 것, 즉, 화자와 지시대상과의 거리가 'the'를 논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the'의 성격은 어떤 구분에서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지 할리데이와 하산이 상기 구분에 들어서기 전에 제시했던 또 다른 구분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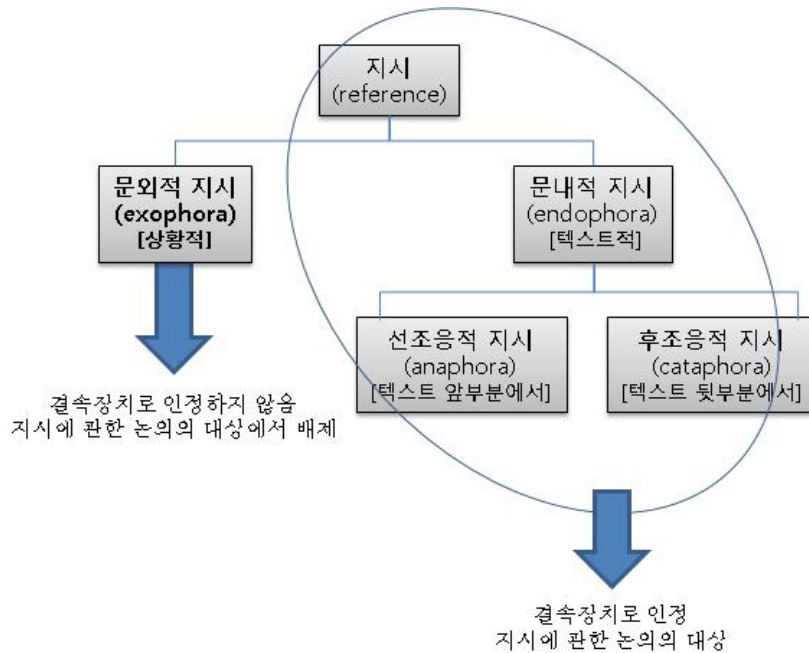


도표2 지시대상의 위치에 따른 지시 구분 (할리데이와 하산(1976)의 구분을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

할리데이와 하산은 지시대상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냐에 따라 도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시의 종류를 구분하였다.¹³⁾ 주어진 텍스트를 둘러싼 상황 혹

13) exophora와 endophora에도 다양한 번역어가 존재한다. 전자는 외적 조응, 문맥외 조응, 문외적 지시로, 후자는 내적 조응, 문맥내 조응, 문내적 지시 등으로 번역된다. 그리고 anaphora와 cataphora의 경우 전자는 선조응, 선행조응, 전방조응으로, 후자는 후조응, 역행조응, 후방조응 등으로 번역된다. 이 가운데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것이 anaphora(참고: Reinhart 1983, Levinson 1984, Ariel 1994)인데, 주로 ‘조응’으로 번역되고 있다(참고: 김광희 1997, 이성범 2001). 이런 점에서 나머지 지시 개념들도 조응을 공유된 용어로 유지하는 번역이 일관성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exophora와 endophora를 나누는 기준이 텍스트, 즉 문(文)이라는 점을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외적 지시와 문내적 지시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겠다. 한편 지시와 조응을 아예 구분해서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김광희 1997: 122). 이 입장에서는 exophora와 endophora를 문외적 지시, 문내적 지시로 번역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기본적인 이론

은 맥락에서 지시대상을 찾을 수 있는 경우라면 ‘문외적 지시’(exophora), 주어진 텍스트 안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을 경우라면 ‘문내적 지시’(endophora)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 문내적 지시는 다시 지시대상을 텍스트 앞부분에서 찾을 수 있느냐 뒷부분에서 찾을 수 있느냐에 따라 ‘선조응적 지시’(anaphora)와 ‘후조응적 지시’(cataphora)로 구분하였다(*ibid.*: 33). 이렇게 나눈 후에는 문내적 지시만이 결속장치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왜냐하면 문외적 지시는 그 지시대상이 텍스트 내에 있지 않고, 따라서 주어진 텍스트의 각 부분들을 하나의 텍스트로 통합(integration)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ibid.*: 37). 그러나 ‘the’를 설명하는 절에서는 문외적 지시가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성격으로 다뤄진다(*ibid.*: 72-73).

앞서 3.2.의 말미에서 언급하였던 ‘the’의 등장 방식과 관련하여 보면 신지선(2006)과 베이커(2011)의 논의에서 다루어진 공지시를 형성하는 선조응적 ‘the’는 문내적으로 지시대상을 찾을 수 있는 ‘the’이고, 본 연구대상이자 텍스트 맨 처음에 등장하여 문내적으로 지시대상을 찾을 수 없는 ‘the Garden’과 ‘the olive orchard’는 문외적 지시의 ‘the’라고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해당 텍스트의 제목 전체인 ‘the Agony of the Garden’에서 ‘the Agony’는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구 ‘the Garden’에 의해 한정된 후조응적 ‘the’이다. 선조응적 ‘the’가 가리키는 대상을 찾는 방법은 앞서 언급하였고 후조응적 ‘the’의 지시대상은 그 한정하는 범주가 문법적으로 명백한 만큼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외적 지시의 지시대상을 확정(determine) 또는 회복(recover)하는 방법¹⁴⁾에 대해서는 퀴크 외(Quirk *et al.* 1985)를 참조할 수 있다. 퀴크와 그의 동료들은 상황지시(situational refer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외적 지시어로서의 ‘the’의 지시대상을 확정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한다.

(1) 상황지시1: 직접 상황(immediate situation)

→ The roses are very beautiful. (정원에서)

→ Have you fed the cat? (집에서)

의 틀로 삼고 있는 할리데이와 하산은 조응을 지시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상의 번역어가 가능하다고 본다.

14) 할리데이와 하산(1976)은 지시대상을 밝히는 과정을 되찾기 혹은 검색(retrieve)으로 표현하였다. 확정(determine) 또는 회복(recover)는 퀴크 외(1985)의 술어.

(2) 상황지시2: 확장된 상황(larger situation)

- the President (지리적으로 한국, 시간적으로 2012년이라는 상황이 주어지면 확정 可)
- the North Pole (지구라는 상황이 주어지면 확정 可)
- the earth/ the stars/ the universe (자연세계에 대한 지식이 주어지면 확정 可)
- the Renaissance (역사적 지식이 주어지면 확정 可)

(Quirk *et al.* 1985: 265-271)

상황지시1은 대체로 대화상황을 상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화자와 청자가 모두 동일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화된 문장 자체에는 구체적인 지시대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the’가 가리키는 대상이 비교적 자명한 경우이다. 반면 상황지시2의 경우는 지시의 영역이 직접적인 근접 상황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외부지식, 좀 더 정확하게는 ‘확장된 상황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외부지식이라고 하면 어떤 단절적 영역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지시체계가 가리키는 지시물을 알기 위해서는 텍스트 내부와는 상반되는 단절된 어떤 외부영역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텍스트를 통해 명시적으로 표상된 세계를 ‘최소’로 하여 그것과 관련된 확장된 세계에 대한 총체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지식은 문외적 지시의 기능을 하는 ‘the’를 통해 ‘이미 아는(혹은 알려진) 지식’임을 알게 된다. 결국 ‘the’를 번역할 때에는 ‘the’가 텍스트 내 결속장치로서만이 아니라 텍스트와 그것의 확장된 상황과의 결속장치, 즉 문외적 지시사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생 A에게 추가해줄 수 있는 설명은 이 점일 것 같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텍스트가 관련을 맺고 있는 확장된 상황은 무엇인지, 이미 앞서 성경이라는 결론을 말하기는 하였으나, 기독교텍스트의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이 점을 조금 더 상술하고 그것이 번역과정에서 가지는 함의를 살펴 보겠다.

5. 기독교텍스트의 번역이 갖는 상황적 특성

기독교텍스트의 번역이 갖는 상황적 특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기독교번역’이라는 과목을 출발점으로 삼아 간략하게 정의하도록 하겠다. 이 과목은 기독교텍스트의 번역을 훈련하는 실무 연습과정으로 실제 운영 중에 있다.¹⁵⁾ 해당 통번역대학원의 홈페이지는 이 과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기독교번역은 ... 찬양곡 번역에서 기독교철학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독교 문서를 한영, 영한 비교 분석하고 번역해 봄으로써 기독교 번역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바른 기독교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과정이다.”¹⁶⁾

그리고 여기에서 기독교텍스트라 함은 번역 과목으로서의 기독교번역에서 다루었거나 다를 법한 텍스트를 가리키는 것으로 대체로 ‘기독교출판사’를 통해 출판된 서적을 대상으로 한다. 그 서적의 종류는 앞서 인용한 소개에 드러난 대로 찬양곡(시)에서부터 기독교철학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편 함께 언급된 ‘기독교출판사’라 함은 ‘한국기독교출판협회’(이하 기협)¹⁷⁾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출판사이거나 회원 가입 의사와 요건을 갖춘 출판사로 한정해볼 수 있다. 이 출판협회는 1973년에 설립되어 170여 개 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해당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 일반 홈페이지 방문자가 실제 검색해볼 수 있는 회원 출판사는 2013년 3월 현재 147개이다.

이 출판협회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번역의 상황이 규정된다고 짐작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출판 관련한 협회로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대협)¹⁸⁾와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이하 과협)¹⁹⁾ 등이 있다. 대협은 주제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고, 과협은 과학기술 서적을 다루는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협에 가입된 출판사들은 그 가입 여부 자체로는 해당 출판사에서 취급하는 서적

15) 한동대 통역번역대학원 1학년 2학기 교과과정 중.

16) 한동대 통역번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gsit.handong.edu/> (2012년 12월 8일 방문).

17)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홈페이지: <http://kcpa.or.kr/>

18) 대한출판문화협회 홈페이지: <http://www.kpa21.or.kr/>

19)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홈페이지: <http://www.kstpa.or.kr/>

들의 특수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협이나 과협에 가입된 출판사들의 서적은 전문번역 내지 특수번역(specialized translation)²⁰ 혹은 장르번역(genre translation)의 관점에서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번역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논하는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참고: 김정우 2003/2011, 김민경 2012). 그러나 기독교텍스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양적인 규모가 적잖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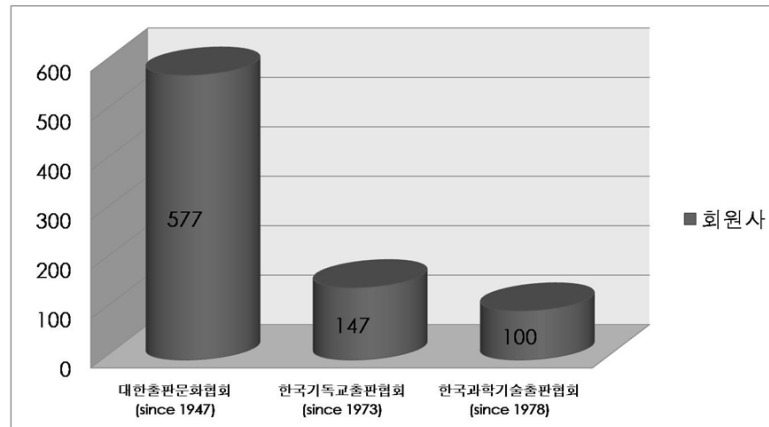


도표3 각 출판협회 가입 회원사 수 비교 (출처: 각 협회 홈페이지)²¹

물론 기독교텍스트는 문학텍스트에 포함되어 문학번역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기독교텍스트의 원천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경우 성경번역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독자적인 출판협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특수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가정하는 바 문학텍스트의 일종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성격 외에도 과학기술분야의 텍스트들에 대하여 최근 연구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텍스트 고유의 특수성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다.

20) 'specialized translation'을 번역하는 용어로 더 일반적인 것이 '전문번역'이겠으나, 이 용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특수번역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겠다.

21) 각 협회 홈페이지에 2013년 3월 25일에 방문하여 확인.

지시사의 지시대상 확정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에 관련하여 기독교텍스트의 번역이 갖는 특수성을 논한다면 '관련성 충족'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구트(Gutt 2000)는 최적의 관련성(optimal relevance, *ibid.*: 163)을 충족하는 것이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고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단서(communication clue, *ibid.*: 169)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적절한 맥락 효과(contextual effects, *ibid.*: 163)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의 처리 노력(processing effort)으로 주어진 텍스트 밖의 인지적 맥락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기독교텍스트의 번역에 적용해보면 번역자는 기독교텍스트가 상징하고 있는 특수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맥락효과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단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소의 처리 노력으로 최적의 관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 성경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이었던 'the'의 경우도 기독교텍스트가 가진 독특한 인지적 맥락을 활성화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 단서로서 기능하고 있었고 그 지시대상 확정할 수 있는 검색영역으로 성경을 필요로 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텍스트는 다른 주제(subject matter) 분야의 텍스트들보다 관련성 충족이 훨씬 용이하다고도 할 수 있다. 적절한 맥락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이 성경으로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듀리우스(Durieux 2000)는 전문번역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물음과 관련하여 전문번역의 난이도를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였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가 자료조사 및 전문용어 정리 상의 난이도였다. 즉 전문번역에서는 관련성 있는 용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텍스트의 경우는 자료 및 용어의 원천이 성경으로 자명하다.

그러나 자명한 만큼 성경을 참조하는 것은 기독교텍스트 번역의 일종의 규범(norm)이 되어 원문의 의도성(intentionality)을 비롯하여 번역문의 용인성(acceptability)과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등을 규율한다. 번역자의 측면에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기독교텍스트를 번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 번역 능력(translation competence)이 된다. 또한 번역과정(translation process)의 측면에서는 기독교텍스트를 번역하는 중이라면 성경과 기독교텍스트의 원문은 동시에 펼쳐져 있는 거나 다름없다. 그만큼 둘의 관계는 긴밀하다.

이처럼 성경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기독교텍스트 번역의 특수성을 본 연

구의 관심사인 문외적 지시사로서의 ‘the’를 중심으로 정리하자면 아래 도표4와 같다. 즉 기독교텍스트에 나타나는 ‘the’와 성경의 상관관계는 두 단계에 걸쳐 더욱 공고해지는데, 첫 번째는 원문에 등장하는 문외적 지시 항목의 정확한 대상을 찾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찾은 지시대상을 용인성 있는 번역어로 옮기기 위한 전례(convention)를 확보하는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참조되는 성경은 본 연구가 다루는 출발어 텍스트가 영문인 만큼 영어 성경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 참조되는 텍스트는 도착어 텍스트가 국문인 만큼 한국어 성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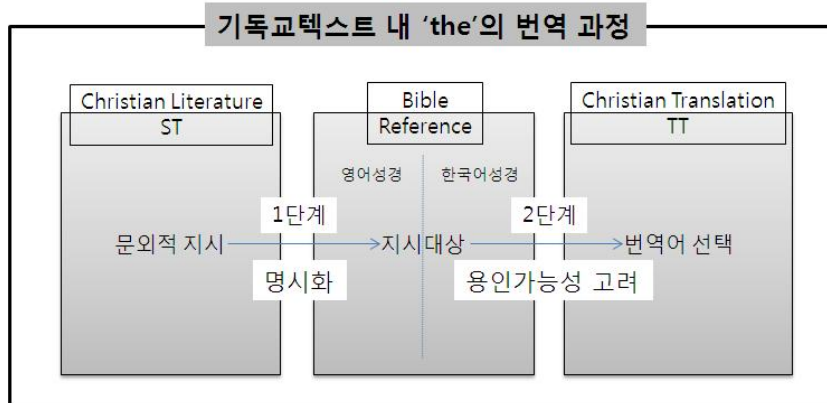


도표4 기독교텍스트 내 ‘the’의 번역 과정 (필자 구성)

이상으로 기독교텍스트의 번역이 갖는 상황적 특징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문외적 지시로서의 ‘the’의 지시대상을 성경 속에서 어떻게 찾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사례를 통해 보이도록 하겠다.

6. 기독교텍스트 내 문외적 지시사로서의 ‘the’의 번역 과정

먼저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던 ‘the olive orchard’의 지시대상을 관련 성경구절에서 찾는 과정이다.

[예시1]

The Agony in (1)the Garden

He [Jesus] began to be deeply distressed and troubled.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he said to them.
(Mark 14:33-34)

Jesus' agony in (2)the olive orchard provides a vivid example of the paradox of his person. ...

상기 원문에 주어진 관련 성경구절은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까지이다. 이미 그 일부가 원문에 주어졌으나, 지시물로 추정할 만한 대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절 전문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그 전후 구절을 살펴야 한다. 같은 장에서 바로 앞 절인 32절을 살펴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를 알 수 있다.

마가복음 14:

32. They went to a place called Gethsemane, and Jesus said to his disciples, "Sit here while I pray."

32.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찾아보아도 마찬가지다.

마태복음 26:

36. Then Jesus went with his disciples to a place called Gethsemane, and he said to them, "Sit here while I go over there and pray."

36.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누가복음 속 관련 구절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원문 서적의 저자(John Stott)가 왜 이 장소를 ‘the olive orchard’라고 표현했는지를 알게 된다. 즉,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장소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 산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부분의 한국어 성경은 이 ‘올리브 나무 산’을 ‘감람산’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누가복음 22:

39. Jesus went out as usual to the Mount of Olives, and his disciples followed him.

39.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동일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올리브 나무가 우거진 이 장소를 ‘동산’이라는 번역어로도 표현하고 있다.

요한복음 18:

1. When he had finished praying, Jesus left with his disciples and crossed the Kidron Valley. On the other side there was an olive grove, and he and his disciples went into it.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래 [예시2]는 [예시1]와 동일한 텍스트의 끝 부분으로 (1)번 밑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an account of Gethsemane’라는 말로 해당 텍스트의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따라서 신중한 번역자는 이 뒷부분을 제목과 서두로 소급하여 ‘the Garden’과 ‘the olive orchard’의 지명이 ‘겟세마네’임을 추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소급하여 지시대상을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참조하여 관련 정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예시2]

From the agony in the garden Jesus emerged with a resolute determination to go to the cross. Though John does not include (1)an account of Gethsemane, he does include a saying that (2)the other evangelists do not: “Shall I not drink the cup the Father has given me?” (John 18:11).

위의 (2)번째 밑줄에는 ‘the other evangelists’라는 명사구가 나온다. 이 명사구는 텍스트 끝 부분에 등장하여 앞에서 선조응적 지시대상으로 추정할 만한 지시물이 주어진 텍스트 안에 풍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전에서 evangelist를 찾으면 (1)기독교를 전하는 사람, 대문자 Evangelist는 (2)복음서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를 가리킨다고 나온다. 학생들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the other evangelists’ 번역
학생 A	n/a
학생 B	n/a
학생 C	다른 복음주의자들
학생 D	다른 복음주의자들
학생 E	다른 기자
학생 F	다른 복음서
학생 G	다른 복음서
학생 H	다른 복음서 저자들
학생 I	다른 복음서 저자들

사전의 용례를 따른다면 ‘the other evangelists’의 evangelists는 대문자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에 가까운 뜻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래서 번역을 하지 못한 A/B를 제외하고 C/D는 이것을 ‘복음주의’(evangelism) 혹은 ‘복음주의의’(evangelical)의 인칭표현으로 이해한 것 같다. 결국 (2)번이 아닌 (1)번 용례를 중심으로 현대 신학계와 교회의 지배적인 사조가 복음주의라는 사전지식을 활용하여 번역어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성경과의 관련성에 좀더 유의했다면 학생 E에서 I처럼 비록 대문자 화 된 경우가 아니어도 (2)번 용례를 중심으로 번역했을 것이다. 해당 문장의 주어는 John인데 이 John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를 가리킨다는 알아차렸다면, ‘the other evangelists’가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중, 요한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사도임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이다. E는 기자 (記者)라는 어휘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성경 시편의 대부분을 쓴 다윗 (David)를 ‘시편 기자’라고 종종 표현하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기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음서’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복음주의자’처럼 아예 다른 그룹의 사람을 가리키는 어휘 보다는 수용가능한 번역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예시1]처럼 텍스트의 맨 앞부분에 등장하는 예시 문이다.

[예시3]

The blue-collar, callous-handed guys roll their eyes as the well dressed young man walks up. It doesn't help that his opening line to Jesus is, "What must I do to earn eternal life?"

"Of course," whispers Peter to Thomas, "who wouldn't want to keep living forever if your bank account will last that long?"

Jesus ignores his disciples. "All you have to do," he tells the eager young man, "is everything God considers good—all those rules Moses came down the mountain with."

"I'm faithful to all that," says the young man.

Jesus shoots Peter and Thomas a look. They stay quiet. It would be easy to mock this rich guy's self-righteousness, but they're also disconcerted as they recognize in him the same awkward mix of eagerness and desperation that started them trekking around behind a holy, baffling Messiah. ...

학생들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학생들이 ‘blue-collar, callous-handed’의 번역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다.

	'The blue-collar, callous-handed guys' 번역
학생 A	거친 손을 가진 노동계층의 사람들
학생 B	블루칼라계층이고 손에 굳은살이 박인 이들
학생 C	작업복을 입은 거친 손의 노동자들
학생 D	굳은살 받힌 손의 노동자들
학생 E	고된 노동으로 굳은살이 가득한 손을 가진 사내들
학생 F	노동으로 인해 손에 굳은살이 박인 그들
학생 G	육체노동에 종사하여 손에 굳은살이 박인 예수님의 제자들
학생 H	육체노동을 하며 손에 온통 굳은살이 박인 제자들이
학생 I	육체노동을 하느라 손에 못이 박인 베드로와 도마
비교	미친한 신분엔 손에는 굳은살이 박인 예수님의 제자들 ²²⁾

그러나 이 부분을 번역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은 'The ... guys'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느냐를 밝혀주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guys는 불특정의 어떤 '사람들'이나 '노동자들'이나 '사내들' 혹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상기 텍스트에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가 관련 성경본문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 부분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 속 등장인물은 예수, 부자 청년, 그리고 제자들('the' disciples)이었다. 성경의 이 부분을 펼쳐 놓고, 서두의 'The'를 문외적 지시사로 인식했다면 학생 G, H처럼 정확한 지시대상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예수의 제자들은 대체로 어부, 세리²³⁾ 등이었기 때문에 'blue-collared, callous-handed'라는 형용사로 수식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만을 가리키는 이 부분을 일반화된 인칭 명사로 번역하면 전혀 틀린 지시가 된다. 학생 I의 경우는 일차적으로 제시된 성경구절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The ... guys'가 예수의 제자들임을 확신하였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텍스트의 뒷부분을 참조하여 예수의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본 텍스트가 언급하고 있는 베드로(Peter)와 도마(Thomas)로 'The ... guys'를 한정하고 있다. 이 역시 수용가능한 번역이라 생각된다.

22) 필자의 번역.

23) 관련 성경구절: 마태복음 4:18, 9:9/ 마가복음 1:16, 1:19-20, 2:14/ 누가복음 5:3-11, 27/ 요한복음 21: 2-3.

7. 결론

이상으로 ‘the Garden’ 혹은 ‘the olive orchard’가 ‘정원’이나 ‘올리브 과수원’으로 번역되지 않고 ‘갯세마네 동산’ 혹은 ‘감람산(원)’으로 번역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이를 ‘the’의 문제로 규정하고 출발한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 이 번역 현상은 ‘the’의 기본 뜻인 ‘그’로의 번역도, ‘그’를 생략한 ‘∅+명사(구)’의 번역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the’가 기지의 정보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는 지적은 본 연구대상을 이해하는데 유용했지만, 그 점에 착안하여 제안된 특수보조사 ‘은/는’과의 대응전략은 적용 가능하지 않았다. 한편 공지시성을 인식하여 명시화 하는 전략은 번역전략으로서는 적용 가능했지만, 본 연구의 ‘the’는 텍스트 내에서 공지시 항목을 형성하는 선조응적 ‘the’와는 등장방식이 달라 이 점을 해명해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the’는 텍스트 내 정보구조에서 지시대상을 추론할 수 있는 선조응적 공지시 기능뿐 아니라 텍스트를 둘러싼 직접대면 상황 혹은 확장된 상황 속에서 지시대상을 찾을 수 있는 문외적 지시 기능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의 ‘the’는 확장된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지시대상을 찾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확인된 ‘the’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he’는 기지의 정보임을 나타낸다.

둘째,
기지의 정보인 지시대상은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찾을 수도 있고 밖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전자는 문내적 지시, 후자는 문외적 지시라 한다.

셋째,
문내적 지시의 경우 텍스트 내에 형성된 정보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구체적인 지시대상을 찾을 수 있다. 그 지시대상을 텍스트 앞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때는 선조응적 지시, 뒷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때는 후조응적 지시라 한다. 이때 선조응적 지시의 ‘the’는 공지시 항목을 형성한다.

넷째,

문외적 지시의 경우 직접대면(immediate) 상황 혹은 확장된(larger)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지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대화 참여자들 간에 공유된 맥락, 후자의 경우에는 관련성 있는 이미 아는 지식의 동원이 정확한 지시대상을 파악하는 열쇠이다.

한편 본 연구대상이 된 문외적 지시의 'the'가 등장한 텍스트는 성경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기독교텍스트였다. 따라서 기독교텍스트로 생산된 원문을 이해하고 기독교텍스트로 기능할 번역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적극적으로 참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독교텍스트에서 'the'가 문외적 지시 기능을 하는 방식으로 등장하였을 때는 (영어) 성경에서 그것의 구체적인 지시대상을 검색하여야 하며 지시대상을 번역할 적절한 도착어를 찾는 과정에서도 (한국어) 성경을 참조하는 것이 충분한 번역에 이르는 효과적인 전략이 된다.

지금까지 기독교텍스트에 나타난 'the'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번역자들이 쉽게 간과하기 쉬운 텍스트의 미시구조인 'the'의 번역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였다. 또한 할리데이와 하산(1976)을 근거로 한 그간의 번역학 내 결속장치 논의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the'의 문외적 지시 성격을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트(2000)가 관련성 있는 번역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단서(communicative clue)를 포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the'가 그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는 아직 미명(未名)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텍스트의 번역을 텍스트 내 미시구조에 대한 조명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기독교텍스트의 번역은 그 범위를 기독교출판사에서 출판한 서적으로만 한정하여도 출판시장에서의 비중이 작지 않다. 또한 그것의 복합적인 자질 때문에 종교번역, 특수목적(languages for specific purposes)번역, 문학번역(혹은 번역문학), 전문장르(specialized genres)번역(Borja *et al.* 2009), 출판번역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향후 좀 더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 하겠다.

참고문헌

- 곽성희 (2000) 「텍스트성과 번역전환: 영한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창간호: 93-117.
- (2001) *Translation and Textuality*, 서울: 한국출판.
- (2002a) 「영한번역에 나타난 결속구조 전환양상」, 『번역학연구』 3(1): 125-144.
- (2002b) 「영한 결속구조 비교 연구」, 『텍스트언어학』 12: 139-156.
- 곽은주, 최정아, 진실로, 김세정 역 (2005) 『말 바꾸기』 서울: 한국문화사.
- 김광희 (1997) 『국어 변항범주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김민경 (2012) 「의약품 텍스트의 영한번역 전략」, 세종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번역학 전공 박사학위 논문.
- 김정우 (2003) 「자연과학텍스트의 번역 방법론 시론」, 『번역학연구』 4(1): 27-49.
- (2006) 『영어번역 ATOZ』, 서울: 동양문고.
- (2011) 「전문용어 번역의 유형과 방법론: 의학전문용어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2): 34-52.
- 신지선 (2006) 「공(共)지시(Co-reference) 표현의 번역 방법 연구: 표층결속성(Cohesion)을 고려하여」, 『통번역교육연구』 4(2): 19-30.
- 안정효 (2002) 『번역의 공격과 수비』, 서울: 우석.
- 양명희, 안경화 (2003) 「영한번역 기사문의 응결장치에 대하여」, 『텍스트언어학』 15: 199-223.
- 원영희 (2002) 「번역의 식민주의적 기능과 탈(脫)식민주의적 기능: 영한번역에 나타나는 대명사 ‘그’의 사용」, 『번역학연구』 3(1): 99-123.
- 이상원 (2003) 「Theme/Rheme 이론과 번역」,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5(1): 145-161.
- 이성범 (2001) 『추론의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이주리에 (2010) 「한국어와 일본어 기사문의 응결장치 분석과 번역」, 『텍스트언어학』 29: 375-400.
- 이희재 (2009) 『번역의 탄생』, 서울: 교양인.
- 조의연 (2009) 「병렬 말뭉치에 기반한 번역학 연구: 호밀밭의 파수꾼과 모순을

-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0(2): 207-246.
- 홍경아 (2012) 「텍스트성을 활용한 실무중심 번역 교육」, 『통번역학연구』 16(3): 211-233.
- Ariel, Maria (1994) "Interpreting Anaphoric Expressions: A Cognitive versus a Pragmatic Approach," in *Journal of Linguistics*, 30(1): 3-42.
- Baker, Mona (2011) *In Other Words*, Oxon: Routledge.
- Beaugrande, Robert & Dressler, Wolfgang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 New York: Longman.
- Borja, Anabel & Izquierdo, Isabel Garcia & Montalt, Vicent (2009) "Research Methodology in Specialized Genres for Translation Purposes," in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3(1): 57-77
- Durieux, Christin 저, 박시현·이향 역 (2003) 『전문번역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Fawcett, Peter (1997) *Translation and Language*,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Gutt, Ernst-August (2000) "Issues of Translation Research in the Inferential Paradigm of Communication," in *Intercultural Faultlines: Research Models in Translation Studies I: Textual and Cognitive Aspects*, 161-179.
- Halliday, M. A. K. & Hasan, Ruqaiya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Levinson, Stephen C. (1987) "Pragmatics and the Grammar of Anaphora: A Partial Reduction of Biding and Control Phenomena," in *Journal of Linguistics*, 23(2): 379-434.
- Neubert, Albrecht & Shreve, Gregory M. (1992) *Translation as Text*. Ohio: Kent State University Press.
- Reinhart, Tanya (1983) "Coreference and Bound Anaphora: A Restatement of the Anaphora Questions,"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6(1): 47-88.
- Snell-Horny, Mary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John Benjamins P.
- Quirk, Randolph & Sidney, Greenbaum & Leech, Geoffrey & Svartvik, Jan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Seoul:
Longman United Publishing & Promotion Co., Ltd.

분석 대상 예시 텍스트

Sttrot, John (2006) *Through the Bible through the Year*, Oxford: Candle Books
Annan, Kent. (2009). *Following Jesus Through the Eye of the Needle: Living
Fully, Loving Dangerously*, DownersGrove, Il.: IVP

인용 성경

개역개정판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 Bible

[Abstract]

**Translation of Exophoric *the* in Christian Literature:
from English into Korean**

Choi, Hyeou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the function of 'the' in the context of Christian literature translation so as to later open up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discussions on the related area. The translation phenomenon on question seems to need more detailed descriptions about the referential functions of 'the' than it generally requires. This paper therefore revisits existing views on the translation of 'the' into Korean and tries to extract necessary understandings for the question until the satisfying explanation finally arrives, which is the exophoric function of 'the.' Another back-bone of this research lies on the premise that Christian literature (published books in this case) is tightly inter-woven with the Bible, which means that it serves as the body of the extra-textual knowledge where the exophoric 'the' in Christian literature can retrieve its exact referent. In this course of discussion, this article brings out an attention to the easily-unnoticed micro-structure of 'the' in the process of into-Korean translation. Also it spotlights the exophoric function of 'the,' which has usually been left out from the discussions of cohesive devices within texts. Yet, concerning contributions of the paper, the most emphasis should be made on the fact that it peeps into the uncharted realm of Christian literature translation, using 'the', one of the smallest fractions of text, as a communicative clue.

▶ Key Words: the, exophora, anaphora, Christian Literature Translation, Bible reference

252 번역학연구 ● 제14권 2호

최효은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학전공 박사과정

force_c@naver.com

관심분야: 기독교텍스트 번역, 성경번역,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3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6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6일